

다산포럼

전문가 사회의 명암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올해는 결단코 혼자 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더구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대행서비스도 예년과 달리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니,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나를 '젊은이'로 공인해 주는구나 하는 뿌듯함(?) 속에서 컴퓨터를 켜고 도전을 시작했다. 유튜브에 널려 있는 교수들의 조언을 길잡이 삼아 어렵게 마침표를 찍었다.

근대 뭐가 짝퉁이다. 매년 일정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소액이긴 해도 더 내야 한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라는 아내의 채근에 거금 10만 원을 주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결과는 더 내야 한다는 금액보다 열배 남짓 환급이었다. 남는 장사를 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무력감은 뭘까? 지난날 있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야기이다.

그동안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도포기하고 세무서의 대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혼자 못 해 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온

라인을 이용한 일상 처리가 힘들기 시작하면 늙는 것이라는데 하는 우울감과 그레도 명색이 '박사'인데 일반 국민 대상의 온라인 서비스도 이용할 줄 모른다니 하는 자괴감이 체증의 정체일 것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레도 아직 '박사'라고 하면 모든 부문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박사'(博士)의 '박'(博) 자가 넓다는 뜻이니, 딱히 그런 기대도 아닐 성싶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어긋나기라도 하면 "박사님인데 그것도 모르세요?"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데는 계면쩍지 않을 요량이 없다.

외롭던 말이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평균 이상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점점 일상화되어 가는 전문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종종 앞서와 같은 무력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먼저 부딪치는 것은 용어의 '낯설음'(낯설)이다. '과세표준'이니 '이월결산금 차감'이니 '세액공제 감면'이니 '누진 공제'니, 이걸다 이해하려다 보면 그야말로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다. 이 곤경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세무사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렇듯 조금이라도 깊이 있는 일들은 일반인이 업무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 어떤 일인데 전문가 그룹이 등장하여 처리하면 효율성은 배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꼭 긍정적이기만 할까? 적어도 두 가지 우울한 전망이 있다. 첫째, 대중은 과정에서 소외되고 결과만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견 편리해 보이지만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매개게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과정에 대한 대중의 그런 무지를 토양으로 전문가 그룹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의사가 써 주는 처방전은 아무리 들 여다봐도 죽으라는 약인지 살라는 약인지 알 수가 없다. 약사라는 또 다른 전문직의 손을 빌려야만 된다. 이른바 '지배적 전문직'(dominant professions) 계층의 출현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士) 자 혹은 '사'(師) 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이들 지배적 전문직은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법적·관행적 권한에 의거하여 자기들만의 '필요'를 만들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제도를 발명한다. 나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그것을 강제할 것인가도 결정한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변호사나 세무사나 의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분야의 일을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심리적 불구의 상태에 놓인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예전에는 '피'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말'을 먹고 산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다. 지배적 전문직들이 구축하는 카르텔은 이 소통을 방해한다. 양극화는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양극화와 언어의 양극화! 이를 해소하는 것은 평등사회를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의식으로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 아닐까.

수필의 향기

상처받은 당신에게



박용수
광주 동신고 교사·수필가

옆 좌석 아주머니가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핀잔을 준다. 술집을 나오는데 어처구니없이 친구는 그 아주머니 편을 든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헤어진 기간의 틈새가 크다. 고상에서 마주친 이웃이 모른 척한다. 마스크 좀 제대로 쓰라고 아들이 투덜댄다. 이웃도 아들도 참 우습고 서운하다.

이야기 도중 침이 튀 모양이다. 딸이 화들짝 놀라 물러서며 정색을 한다. 바람 좀 쐬려고, 바지를 꺼내 입는데, 아내는 내 배를 한심한 듯 보며 운동 좀 하라. 특 볼거진 울창이배를 자랑스럽게 보던 어머니의 눈길과 정반대다. 딸과 아내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종게 말하면 뭘 텐데, 비오는 표정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한다. 뻘내 내 편이라고 여겼는데, 냉정히 거리를 둘 때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되돌아 보기도 억울하고, 부끄럽기보다 화부터 난다.

상처는 주로 가까운 친구나 친척 그리고 가족이 이웃에게서 받는다. 과민 반응하거나 가시 돌친 말에 커

다란 상처를 받는다. 그 많은 참음성이나 아량은 사라지고 표정부터 일그러진다. 화풀이라도 하고 나면 괜찮아지려만 참고 있으려니, 부아가 치밀고 심지어 죽을 만큼 아프다.

대부분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사소한 표정이나 말로 상처를 입는다. 거친 말과 알미운 표정은 상대방을 날카롭게 후벼 낸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고 더 아프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안정을 찾으면 더욱 큰 배신감이 생긴다. 때로는 양갈음을 계획한다. 절제된 복수, 단단한 보복을 결심한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낳는다. 심지어 자신에게 주기도 한다. 못났느니, 한심하느니, 죽어야 한다느니 하는 독백은 자신에게 주는 상처이자 자신이 받은 상처이다.

삶에서 상처는 옷과 같아서 사람에게 따라 훑힐 털고 벗어 버리기도 하고 단단히 조여 입기도 한다. 사람에게 따라 화를 내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고, 어느 정도 저항력이 생겨 무뎠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상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성숙해지는 이도 있다.

상처에 맞서 싸우려면 먼저 운동량을 늘려 게으른 뱃살을 빼야 한다. 병균에 맞서는 항체를 만들려면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근육과 체중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않고 낙관적인 태

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정체되지 않게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 썩느냐 새살이 되느냐의 전환점은 정체와 변화 사이에 있다. 자신을 바꿔야 새살이 돋고, 새살을 얻는 사람은 성숙해진다.

상처는 까맣게 탄 숯과 같다. 나무가 타고 남으면 숯이 된다. 한번 탄 숯은 요란하게 불꽃을 내지 않고 누구를 데지 않고도 은은하게 탄다. 글을 쓴다는 것도 오래 전 흥터를 통해 과거의 통증을 기억해 내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거나 상처를 다시 파내서 살이 되는 과정을 되살펴 보는 일이다. 작가는 상처를 현미경으로 예민하게 관찰하여 그 상처가 살이 될, 치료제를 제조하는 이들이다.

노인이 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여간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그만큼 견디는 힘이 강해진 것이다. 마을 노인들을 보면 누구나 자매 같고 형제 같다. 상처를 주고받다가 어느 연륜에 이르러서 상처 대신에 사랑을 주고받는 삶으로 전환한 이들, 그래서 행동도 비슷해지고 생각새도 닮아 버린 이들도. 상처가 완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 상처와 싸웠겠는가.

사랑은 그냥 피지 않는다. 세찬 비바람과 눈보리를 견디고 꽃이 피듯 사랑의 꽃도 그렇게 열흔이 낭자한 상처 위에서 핀다. 그래서 찬란하고 그래야 향기를 뿜는다.

기고

해양환경 보전 위한 작은 실천 '반려 해변 제도'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우리나라는 지구 둘레의 37%인 1만 4936km의 긴 해안선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오래전부터 바다를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소중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 등으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증가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중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의 그물·페트병·비닐 등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년 해양 및 해안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긴 해안의 특성상 공공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연

안 환경 및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연안 환경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반려 해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해안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해변 입양 제도'(Adopt-A-Beach program)를 변형한 것으로, '해변을 입양한 자식처럼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2020년 명칭 공모전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이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특정 해변 및 연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화 활동 등 지속적인 연안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제주 지역의 3개 해변(금능·표선·중문색달)에서 반려 해변 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제주지역 3개 해변 외에도 인천·경상남도·충청남도를 추가 지정하고, 2023년에는 전국 11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사 1연안 가꾸기' 등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제별 역할, 입양 기준, 행동 요령을 정리한 반려 해변 제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참여 기업 또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려 해변 제도가 기존 민간 참여 방식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반려 해변 참가 기업 및 단체는 기존 수거 캠페인 및 행사 참가자들과 달리 지정된 구간의 해양쓰레기를 2년 동안 관리하게 된다. 둘째, 해변쓰레기 정보를 매뉴얼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국가 해변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셋째, 어떤 항목의 해안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되는지 등 해안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반려 해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의 입장에서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캠페인의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ESG(친환경,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반려 해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려 해변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참여, 기업 및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최대 해양 자원을 보유한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

社說

다단계 하청에 '시민안전실'은 있으나 마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붕괴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인 건설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가 공사 경험과 기술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또 다른 업체에게 수주 실적의 열 배가 넘는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 구역 내 610개 동의 건축물 철거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산업개발은 (주)한솔기업에 철거 업무를 모두 넘겼다. 한데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기업은 또 다시 지역 업체인 (주)백솔건설에 철거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사 결과 백솔건설이 사실상 1인 건설사로 밝혀지고 있는 점이다. 참사 당일인 지난 9일에는 이 업체 대표가 직접 굴착기를 몰아 건물 철거를 했고, 다른 직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이 백솔건설이 지난해 수주

한 사업은 단 두 건, 6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업체가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철거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백솔건설은 석면 해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근렬 씨가 운영하는 다원그룹 소속의 다원이앤씨로부터 일부 석면 철거 공사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단계 하청으로 인해 최종 하도급 업체는 수주 금액이 크게 줄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 간의 불법 계약 행위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참사와 관련 광주시가 '시민안전 도시'를 내세우며 운영 중인 '시민안전실'의 무사안일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 달 전에도 계림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두 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시민안전실 조직부터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닥치는 변화의 바람

국민의힘 대표에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된 이후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특히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몰고 올 '젊은 보수'의 바람이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의 표심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호남 민심이 보수 지지층으로 옮겨 갈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이대표는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데 이어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

소가 마련된 광주로 향했다.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광주를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종민 전 비대위 원장의 '광주 5·18민주묘지 무릎 사교'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호남 보수세력'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혁신과 변화 및 미래 이슈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점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이끌어 갈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풀봉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피' 영입 대폭 확대 등 호남 정치권에도 변화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無等鼓

지난 2017년 7월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이때 식탁에 오른 황태절임과 바지락비빔밥은 임지호 셰프가 자신의 철학을 담아 선보인 음식이었다. 한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황태와 각자를 존중하며 하나를 이루어 내는 비빔밥처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정치도 음식과 똑같다. 우리가 음식을 한 쪽으로 치우쳐서 먹으면 몸이 병해지거나 화상을 입는다.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강

군 북부 중일 때 돌아가신 양모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다.

경남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의 한 할매니를 어머니처럼 대하는 그의 따뜻한 모습은 지난해 가을 개봉한 자전적 다큐 '밥정'(감독 박혜령)에 잘 묘사돼 있다. 그는 "음식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배려와 나눔'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나눔의 기나 화상을 입는다.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강

'방랑 식객'

'방랑 식객'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임셰프가 지난 12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취재자 딱 한 번 만났지만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재미'와 '힐링'을 안겨 주었던 그의 흥얼흥얼 부제가 아쉽기만 하다. '밥은 정(情)이다.' 그가 자신의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 주고자 했던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담긴 '밥정'이었다. 하늘에서도 나눔의 큰 뜻을 펼치시길 바란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